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姜 寬 植

전통채색을 응용한 화훼화 표현연구

<연화도(蓮花圖)>의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2 0 0 7 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繪 畫 科

傳 統 眞 彩 畫 專 攻

金 英 姬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姜 寬 植

전통채색을 응용한 화훼화 표현연구

<연화도(蓮花圖)>의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A Study on expression in floral painting
applying traditional coloring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 0 0 6 年 12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繪 畫 科

傳 統 眞 彩 畫 專 攻

金 英 姬

金 英 姬의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 0 0 6 年 12 月

심사 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국문초록

한국의 전통채색화는 안료 및 바탕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구사(驅使)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채색화처럼 철선을 사용하여 완성도를 높이려 하지 않았으며 중국 채색화와 같이 거대하고 웅장함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찌 보면 미완성된 것 같은 여백의 공간을 활용했지만 애써 그것을 설명할 만치 그렇게 섬세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다른 나라의 그림과 차별이 되어 민족의 독특한 향기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듯 예술적 향기는 민족마다의 독특함이 있어야 하며 그 향기가 예술을 통하여 표출할 때 비로소 그 독자성이 생성된다고 믿는다.

본문에서 서술된 연화도 제작과정은 연꽃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 연꽃은 비록 높이나 못에서 자라지만 결코 꽃잎을 더럽히지 않는 꽃으로써 순결, 청순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종파의 종교에서 사랑받는 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고달픈 중생을 구원하는 석가모니를 상징하고, 도교에서는 고결함과 선의 경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 왔는데 주돈이의 ‘애련설’에는 연꽃을 군자의 꽃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화도의 제작과정은 전통채색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를 응용한 창작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채색법에 대한 연구로 이미 중국채색화와 한국의 전통채색화에 대한 임모를 마쳤으며 그 결과 본고에서 서술된 창작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화도 창작을 위한 준비 과정과 제작 과정으로 나누어, 준비과정에는 쟁틀 매는 법, 교반수하는 법 등을, 제작과정에서는 연꽃 스케치하기, 선 연습, 색표제작, 적절한 안료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채색화가 나아가 방향을 어렵듯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민족 특유의 채색화법을 계승하여 널리 알렸으면 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II. 연꽃의 의미와 상징	3
1. 연꽃의 생물학적특징	3
1) 연꽃의 특징	3
2) 연꽃의 품종	3
2. 연꽃의 의미와 상징	5
1) 불교	5
2) 유교	6
3) 도교	7
4) 힌두교	7
5) 동,서양신화	7
3. 연꽃의 문학적 표현	8
1) 주돈이, 「애련설」	8
2) 이규보, 「연꽃」	9
3) 서정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9
4. 연꽃의 회화적 표현	10
1) 중국	10
2) 한국	12

III. 연화도 제작과정	16
1. 밑그림 제작	16
1) 스케치 장소	16
2) 스케치 하기	17
3) 밑그림 제작	18
2. 색표 제작	19
3. 선 연습	20
4. 비단 자르기	21
5. 쟁틀에 비단 매기(붙이기)	21
6. 교반수(膠礬水) 칠하기	22
7. 상초(上草)	24
8. 먹 선염	26
9. 채색 작업	26
1) 석채	27
2) 봉채	27
3) 분채	28
4) 편채	28
5) 호분	28
6) 세부 묘사	29
10. 표구(表具)	33
IV. 결론	34
도 판	35
참고문헌	43
ABSTRACT	45

그림 목 차

(그림 1) 관곡지	16
(그림 2) 관곡지	16
(그림 3) 관곡지	17
(그림 4) 관곡지	17
(그림 5) 밑그림 준비재료	18
(그림 6) 라이트 박스	18
(그림 7) 색표제작	19
(그림 8) 선연습	20
(그림 9) 비단 자르기	21
(그림 10) 비단매기	22
(그림 11) 교반수 준비물	23
(그림 12) 아교 중탕	23
(그림 13) 교반수 칠하는 법	24
(그림 14) 상초	25
(그림 15) 먹 선염	26
(그림 16) 연꽃	29
(그림 17) 연꽃	29
(그림 18) 연방	29
(그림 19) 연방	29
(그림 20) 연 수술	30
(그림 21) 연 수술	30
(그림 22) 앞 잎	30
(그림 23) 앞 잎	30
(그림 24) 뒷 잎	31

(그림 25) 뒷 잎	31
(그림 26) 폐하 부분	31
(그림 27) 폐하 부분	31
(그림 28) 줄기	31
(그림 29) 줄기	31
(그림 30) 풀	32
(그림 31) 풀	32
(그림 32) 개구리밥	32

도 판

(그림 1) 김영희, <연1> (창작), 2006, 비단채색, 145×94cm	35
(그림 2) 김영희, <연2> (창작), 2006, 비단채색, 136×56cm	36
(그림 3) 김영희, <연3> (창작), 2006, 비단채색, 65.5×51.5cm	37
(그림 4) 김영희, <연4> (창작), 2006, 비단채색, 65.5×51.5cm	38
(그림 5) 김영희, <양귀비> (창작), 2006, 비단채색, 72×90cm	39
(그림 6) 김영희, <유채> (창작), 2004, 비단채색, 65.5×51.5cm	40
(그림 7) 김영희, <이화> (임모), 2004, 비단채색, 65.5×51.5cm	41
(그림 8) 김영희, <출수부용도> (임모), 2004, 비단채색, 65.5×51.5cm ..	42

I. 서 론

연꽃은 늪이나 못에서 자라 여름에 꽃을 피우는데 진흙 속에서 사람에도 불구하고 꽃잎이 더럽혀지지 않은 채 청결(淸潔)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식물이다. 순결(純潔), 청순(淸純)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고달픈 중생을 구원하는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佛敎)회화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고대 중국회화에 등장한 연꽃그림은 천계(天界)의 중앙이나 그 중심지로서 천체를 상징하곤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고분들 속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꽃임에 틀림없다. 고구려의 쌍영총의 경우 천장의 중앙에 큰 연꽃이 그려져 있으며 용강대총에서도 솟대와 동자주 사이에 연꽃을 한 송이씩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백제의 능산리 고분벽화의 천장에 그려진 연화운문은 곧 천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안악1호분, 2호분, 중화 진파리 4호분 연화총 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불교회화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고려에 있어서는 〈양류관음도〉, 〈석가삼존상〉과 같은 탕화¹⁾(幀畵)에도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송유억불 정책에 따라 불교문화가 쇠퇴하고 유교문화가 성립되는데 연꽃은 이러한 유교에도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조선후기로 오게 되면 연꽃이 청정(淸淨) 불염(不染)등 불교적 의미나 청렴 고상함 등 유교적 의미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의 상징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최북(崔北)²⁾의 〈애련도〉³⁾(愛蓮圖)를 통해 그 유교적 의미가

1) 불교의 신앙내용을 그린 그림. 탕화는 기능에 따라 본존의 후불탱화(後佛幀畵)와 신중탱화(神衆幀畵)로 나누어지고 신중탱화는 다시 팔부(八部)신중탱화와 사천왕(四天王)탱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후불탱화가 본존불의 신앙적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중탱화는 수호신적인 기능을 띤 것이다. 다만 후불탱화의 경우 본존불이 무슨 불(佛)이냐에 따라 탕화의 구도가 달라지고 신중탱화의 경우에도 수호의 기능을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내용과 구도가 달라진다

2) 조선 후기의 화가. 산수화, 매추라기를 잘 그렸고 시에도 뛰어났다.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 《수각산수도(水閣山水圖)》, 《한강조어도(寒江釣漁圖)》 등이 있다. 주돈이의 ‘애련설’을 보고 《애련도》를 그렸다.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채색화(彩色畵)는 물상의 외형적 완성미를 추구하는데 주력하는 공필화(工筆畵)보다는 비록 섬세하지는 못하나 물상이 가진 본질에 더욱 다가서려고 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즉 물체의 특성과 골격, 그 내재된 성질과 본질, 그리고 구수함과 질박함을 더 우선으로 하고자 자연스러운 선묘와 가식적이지 않은 채색을 주요한 조형요소로 채택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전통채색화법을 응용한 화훼화(花卉畵)에 대한 연구과정을 약술함으로써 장차 우리민족의 우수한 채색화법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3) 최북이 그린 그림으로 중국 송나라 때의 주돈이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을 보고 그렸다. 연꽃을 군자에 비유한 것이 특징이다.

II. 연꽃의 의미와 상징

1. 연꽃의 생물학적 특징

1) 연꽃의 특징

수련과의 다년생 수초. 아시아 남부, 북 호주가 원산지이다. 연못에서 자라고 논밭에서 재배되기도 한다.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어가며 마디가 많고 가을에는 특히 끝부분이 둥글어 진다. 잎은 뿌리줄기에서 나와서 높이가 1~2M로 자란 잎자루 끝에 달리고 둥글다.

또한 지름 40cm 내외로서 물에 젖지 않으며 잎맥이 방사상으로 퍼지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자루는 겉에 가시가 있고 안에 있는 구멍은 땅속 줄기의 구멍과 통한다. 꽃은 7~8월에 피고 홍색 또는 백색이며 꽃줄기 끝에 1개씩 달리고 지름 15~20cm 이며 꽃줄기에 가시가 있다. 꽃 턱은 크고 편평하며 지름 10cm정도로 종자가 구멍에 들어있다. 종자의 수명은 매우 길고 2000년 묵은 종자가 발아한 예가 있다.

2) 연의 품종

연은 대부분의 식물도감에서 수련과에 넣어 분류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근의 DNA 레벨 계통분류에 따르면 연과는 연속이 1속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과는 연속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중국, 인도, 카스피해에 걸친 아시아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분포하는 연과 북아메리카 동부로부터 남아메리카의 북부(콜롬비아)까지 분포하는 황연의 2종이 있으며 *N. lutea*는 북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으로 꽃

이 노랑기 때문에 황연이라고 부르고 있다.

*Nelumbo nucifera*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백련, 홍련 등으로 불리는 품종이다.

연의 품종은 꽃의 색깔, 꽃잎 수, 꽃의 크기, 잎의 크기, 화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색깔에 의한 연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 (1) 홍연 : 꽃잎 전체가 붉은색 또는 대체적으로 붉은 색
- (2) 백연 : 꽃잎 전체가 완전한 흰색
- (3) 황연 : *Nelumbo Lutea* 또는 그것에서 유래한 원예품종으로 꽃잎이 담황 또는 대체적으로 황색
- (4) 복색연 : 꽃잎에 흰색 이외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띠는 연
- (5) 색변이연 : 꽃이 피어있는 기간 동안 꽃 색이 점차 변하는 것

2. 연꽃의 의미와 상징

1) 불교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부처님은 설법(說法)을 하실 때에도 연꽃의 비유를 많이 들었다. 또한 선가(仙家)에서 ‘염화시중의 미소요, 이심전심의 묘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느 날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부처님이 설법은 하시지 않고 곁의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였는데 제자 중에 가섭존자만 홀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이것은 마음으로 마음을 속속들이 전하는 도리로서 선종에서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이치라 하여 중히 여기고 있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된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처럼상정(處染常淨)이다

즉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는 살지 않는다.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물에 살지만 그 더러움을 조금도 자신의 꽃이나 앞에는 묻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불자가 세속에 처해 있어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름다운 신행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보살이 홀로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열반(涅槃)의 경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생의 구제를 위하여 온갖 죄업과 더러움이 있는 생사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화과동시(花果同時)이기 때문이다.

연꽃은 꽃이 필과 동시에 열매가 그 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것을 ‘연밥’

이라 하는데, 즉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며 열매의 원인인 것이다. 이 꽃과 열매의 관계를 인과(因果)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인과의 도리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중생들은 이 인과의 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이 짓는 온갖 행위에 대한 과보를 마치 연꽃 속에 들어 있는 연밥처럼 훤히 알 수 있다면 아무도 악의 씨를 뿌리려 하지 않아 죄의 꽃은 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과의 도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꽃이 연꽃인 것이다.

셋째, 연꽃의 봉오리는 마치 불교신도가 합장(合掌)하고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경건히 서 있는 불자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연꽃이 막 피어오르는 것과 흡사한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에서 연꽃은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다.

2) 유교

연꽃은 유교에서도 여러 의미로 사랑받아왔다. 중국의 학자였던 주돈이의 <애련설>에 의하면 '연꽃은 흙탕에서 피지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맑고 잔잔한 물결에 씻겨도 결코 오염하지 않다.' 보통 불교의 꽃으로만 여겨지는 연꽃이 유교에서는 순결과 세속을 초월한 상징, 선비다운 태도나 풍류의 상징으로 또 민간에서는 연생귀자의 구복적인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연꽃의 생태적 속성 때문이다. 보통 식물들은 꽃이 먼저 피고 그 꽃이 진 후 열매를 맺는 데 반해, 연꽃은 꽃과 많은 열매가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다.

3) 도교

도교에서는 팔 신선 중의 하나인 하선고가 지니는 선계의 꽃으로 사랑을 받아 왔다. 고결함과 선의 경지를 상징하며 자손 번창과 부부 화합을 의미하고 여름과 다산의 상징하는 꽃이다.

4) 힌두교

힌두교에서는 연꽃을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최초의 식물이라 규정하며 연꽃의 여신인 라크슈미는 행운과 창조 에너지의 상징이다.

5) 동, 서양 신화

영어의 로터스(Louts)는 연과 수련을 함께 취급한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데 나일강가에서 피는 이집트인의 신성한 로터스는 수련이고 그리스신화에서 식연인(lotus eater)이 먹은 로터스는 별노랑 종류이다. 인디안 로터스(Indian lotus)는 연이며 인도의 고대민속에서 여성의 생식을 상징하고 다산(多産)과 힘, 생명의 창조를 나타낸다. 또한 풍요·행운·번영·장수·건강 및 명예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 및 영원불사의 상징으로도 삼았다. 인도에서는 BC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연꽃의 여신상(女神像)이 발굴되었고, 바라문교⁴⁾(婆羅門敎)의 경전에는 이 여신이 연꽃 위에 서서 연꽃을 쓰고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4) 불교에 앞서 고대 인도에서 경전인 베다의 신앙을 중심으로 발달한 종교. 우주의 본체 곧 범천(梵天)을 중심으로 하여 희생을 중요시하며 난행고행과 조행(操行) 결백을 으뜸으로 삼는다

3. 연꽃의 문학적 표현

1) 주돈이(周敦頤), 「애련설」(愛蓮說)

물과 육지에 나는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진(晉)나라의 도연명(陶淵明)은 유독 국화를 사랑했고, 이(李)씨의 당(唐)나라 이래로 세상 사람들이 모란을 매우 좋아했다.

나는 유독,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에 씻겼으나 오염하지 않고, 속은 비었고 밖은 곧으며, 덩굴은 뻗지 않고 가지를 치지 아니 하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꽃꽂하고 깨끗이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는 연꽃을 사랑한다.

내가 말하건대, 국화는 꽃 중에 속세를 피해 사는 자요, 모란은 꽃 중에 부귀한 자요, 연꽃은 꽃 중에 군자다운 자라고 할 수 있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이는 도연명 이후로 들어 본 일이 드물고, 연꽃을 사랑하는 이는 나와 함께 할 자가 몇 사람인가? 모란을 사랑하는 이는 마땅히 많을 것이다.

水陸草木之花，可愛者甚蕃 °

晉陶淵明獨愛菊；自李唐來，世人盛愛牡丹；

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濯清漣而不妖，中通外直，不蔓不枝，

香遠益清，亭亭靜植，可遠觀而不可褻玩焉 °

予謂菊，花之隱逸者也；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 °

噫！菊之愛，陶后鮮有聞；蓮之愛，同予者何人；

牡丹之愛，宜乎眾矣 °

2) 이규보, 「연꽃」

숲속의 새 물에 들며 푸른 비단 수면을 가르니
잔잔한 물결 일렁이며 연잎을 감싸 안네
선심이 본래 스스로 맑은 것을 알고 저
희디흰 가을 연꽃이 찬 물결 위로 솟네.

3) 서정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섬섬하게,
그러나
아조 섬섬지는 말고
좀 섬섬한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옛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4. 연꽃의 회화적 표현

1) 중 국

당.송 이전에는 연(蓮)그림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을 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기서 송대 그림이후의 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송

· 혜승(惠崇) - 〈추포쌍원도(秋浦雙鴛圖)〉, 종이에 담채,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는 연꽃과 갈대가 쓸쓸하게 흠어진 가운데 한 쌍의 원앙새가 정답게 노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원앙새의 색채가 매우 아름답다.

· 오병(吳炳) - 〈출수부용도(出水芙蓉圖)〉, 비단에 채색, 고궁박물관 소장> 는 필법이 정세하고 설색이 풍부하여 필묵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남송원체화풍의 대표작으로 칭할 만하다.

(2) 원

· 전선(錢選) - 인물, 산수, 화조를 잘 그렸으며 채색본위의 작품제작을 한화조화에서는 극도로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백련도(白蓮圖)〉, 종이에 담채, 산동성박물관 소장> 가 있다.

(3) 명

· 심사(沈仕) - 명대 중기의 화가로 산수, 화훼화를 잘 그렸으며 진순과 비교되었으나 절과풍의 거친 필묵법이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화훼권(花卉卷)〉, 비단에 채색 > 이 절강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있다

· 이사달(李士達) - 〈서련도(瑞蓮圖)〉, 종이에 채색,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물گل법과 백묘법을 같이 사용한 담백하고 청신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괴석은 필선이 전혀 없이 물기가 많은 먹으로만 묘사하였고, 연잎은 먼저 녹색 물감으로 그리고 나중에 잎맥을 가하였으며, 두 송이의 연꽃은 윤곽선만으로 묘사하였다. 먹과 색채의 농담만으로 괴석의 입체감, 연잎 안팎의 다른 질감을 완벽하게 표현하였고, 윤곽선만으로 된 연꽃과 세 줄기의 연줄기는 양감을 충분히 전달했다.

· 여기(呂紀) - 명대 중기의 화조화 화가로서 당대와 송대의 화조화를 임모하여 스스로 화풍을 수립했다고 전해지며 장식성이 강한 착색화조화 양식을 창시했으며 사생파의 대표라 할 수 있으며 〈잔하응로도(殘荷鷹鷺圖), 비단에 담채, 북경고궁박물관소장〉에서 그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

· 진순(陳淳) - 명대 후기의 문인화가로 미법산수에 능했으며 심주화풍을 기반으로 하는 화훼화의 조방한 수묵기법을 구사한 진순의 그 대표작 〈하석도축(荷石圖軸), 종이에 채색〉은 필묵이 간결하고 담아하며 청쾌수윤한 품격을 띠고 있다.

· 주지면(周之冕) - 〈하계원도축(荷溪鵲圖軸), 비단에 채색, 고궁박물관 소장〉는 비단바탕에 그려져 전체적으로 화면이 맑고 빼어나다. 필묵이 자연스럽고 설색이 풍부하며 아름답다. 이는 비록 명대 후기의 오파계열의 화가이지만 화풍이 다소 굵고 가는 강한 필선으로 준법 등에 있어서는 절파의 화조화풍에도 가깝다.

· 서위 - 명대의 문인으로 그림은 산수, 화훼, 초충을 주로 그렸으며 먹색이 아름다운 수묵화훼를 잘 그렸으며 〈황갑도(黃甲圖), 종이에 수묵, 북경고궁박물관〉에서 그의 빼어난 연그림을 볼 수 있다.

(4) 청

· 장걸(張杰) - 〈하화도(荷花圖), 비단에 채색, 일본 개인소장〉은 활짝 핀 연꽃과 막 피려는 연꽃 봉오리를 물گل화법으로 예쁘게 그려진 그림이다. 진흙 가운데 자라면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과 연꽃은 화훼화가들의

좋은 화제였다.

· 고봉한(高鳳翰) - 초서, 전각에 뛰어났으며 오른손을 앓아 왼손으로 자유분방한 산수, 화훼를 잘 그렸는데 그 중 〈하화도(荷花圖)〉, 비단에 채색, 산동성박물관소장〉도 있다.

· 팔대산인 - 〈연지소금도(蓮池小禽圖)〉, 종이에 수묵, 신시내티 미술관〉는 과감한 발묵과 파묵을 활용한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연그림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령과 생명의 율동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다.

(5) 근 대

· 오창석(吳昌碩) - 고희를 넘긴 나이에 그린 〈백하도(白荷圖)〉, 종이에 담채 > 는 한 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과감한 발묵과 파묵의 절묘한 조화로 그린 것으로 노년기의 깨끗하고 간소한 그의 생활자세를 엿 볼 수 있는 그림이다.

2) 한 국

(1) 고구려

고구려에서는 대체로 일반벽화와 같이 도식적으로 그려졌다.

4~5세기

무용총에는 인문풍속화를 주제로 전설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현실의 천정부와 천정 석에는 연꽃이 그려져 있다.

통구 12호분에 있는 벽화에는 〈수렵도〉(狩獵圖)와 〈전투도〉(戰鬥圖)가 그려져 있는데 전설과 현실의 천장부에 연꽃이 있다.

5~7세기

모든 고분에 연꽃이 다 그려져 있을 정도로 많다. 집안에 있는 통구 4호분, 5호분에는 둘 다 묘실 벽에 연꽃이 그려져 있으며 또한 집안에 있는 고분인 통구사신총의 천정 석에도 있다.

평양에 있는 진파리 1호분, 4호분 그리고 내리 1호분에는 묘실 벽과 천장부에 나타나며, 강서대묘에는 전체적으로, 강서중묘에는 묘실 벽과 천장부에 나타난다.

(2) 백 제

무녕왕릉에 출토된 유물 중 두침에 그려진 주칠(朱漆) 바탕의 목침 앞뒤에 연화, 인동, 봉황, 어룡, 화생도(化生圖) 등이 나타나며, 부여 능산리 동하총 벽화에서는 판석으로 짠 현실 내벽 천장에 연화문과 비운문(飛雲紋)을 볼 수 있다

(3) 가 야

회화로 알려질 만한 유적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화의 예로 고령 고화동 벽화고분이 있다. 그 곳에 그려진 연화문은 홍색, 녹색, 갈색 등의 안료로 세련되게 그려져 있으나 좁고 긴 고분 천장의 형태 때문인지 여러 개의 연꽃을 일렬로 그린 것이 특이하다.

(4) 신 라

신라의 고분은 대부분 적석목곽분으로 자갈과 흙을 산처럼 쌓아 만들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만한 벽면이 없다. 그렇지만 순흥 어숙술간의 묘실천정에는 만개한 연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 인접지역에 있는 기미년

명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에서도 북벽에 연꽃이 역시 그려져 있다.

(5) 고 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연 그림이 독자적으로 그려졌다고보다는 종속적으로 그려졌다.

불화에서는 <나한상>(羅漢像),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 <아미타상>, <관무량수변상>, <석가삼존상>, <석가설상도>에 연꽃이 그려져 있다. ‘지원(至元) 23년’(1286)의 연기가 있는 <아미타여래입상>(阿彌陀如來立像)의 발 주변에 연꽃이 묘사되어 있으며 일본 대덕사에 소장된 <수월관음> 등에도 그려져 있다. 연꽃이 그려진 벽화에는 부석사조사당벽화, 개성 수락동 고분벽화, 장단법당방고분벽화, 공민 왕릉벽화, 거창 고분벽화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일반 회화작품에서는 <세한삼우도>(歲寒三友圖),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안향상>(安珦像) 등에서 연꽃을 볼 수 있다.

(6) 조선전기

연꽃은 송유억불의 국시로 인해 불교가 쇠퇴하면서 대개 실물보다 약간 짙은 빛깔로 그려진 겨레의 꽃으로 변모했다. 꽃 자체를 묘사하기 위한 꽃이 아니라 꽃이 지닌 아름다움을 빌어 여인의 안방 그림으로서 사랑을 받는 안방장식용 그림으로 화해버렸으며, 건축과 공예가 중심이 된 즉, 도자기 문양과 창살문양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곧 소박하고 실용적인 미술로 발달하였다.

(7) 조선후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연꽃은 청정 불염의 불교적 의미나 청렴 고상함 등의 유교적 의미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상징물로써 존재하고 있다. 연꽃 아래 노는 원앙 한 쌍에는 부부의 금실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데 이는 아침이면 활짝 벌어지고 밤이면 오므리는 연꽃의 습성과 일생동안 짝을 바꾸지 않는 원앙처럼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연밥이 들어있는 송이를 포함한 연꽃의 그림에는 귀한 아들을 빨리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듯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회적인 배경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민화는 고상함은 없지만 순정이 있고 격이 그리 높진 않으나 천진함이 있으며 비록 깊고 오묘하지는 않으나 무구함이 담겨있다.

작품으로는 신윤복의 〈연당의 여인(蓮塘의 女人)〉, 비단에 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있다. 연못가의 별당 뒷마루에 걸터앉아서 한 손에는 장죽, 다른 한 손에는 생황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긴 여인을 그린 것인데 칠혹같은 트레머리 끝에 살짝 비낀 자주빛 땀기가 연꽃 봉오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이다. 그외에도 최북의 〈애련도〉 김홍도의 〈연〉 심사정의 〈연화도〉 등이 있다.

III. 연화도 제작과정

1. 밑그림 제작

1) 스케치 장소 : 관곡지 [官谷池]

1986년 3월 3일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었다. 못의 규모는 가로 23m, 세로 18.5m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농학자였던 강희맹(姜希孟:1424~1483)이 명나라에서 연꽃 씨를 가져와 이곳에 심은 뒤 널리 퍼지자 이 지역을 ‘연성(蓮城)’이라 불렀다고 한다. 시흥관내의 연성초·연성중학교 등과 연성동 및 시흥시의 향토문화제인 연성문화제(蓮城文化祭) 등의 명칭은 이 연못의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이곳에서 피는 연꽃은 백련으로서 빛깔이 희고 꽃잎은 뽕죽한 것이 특징이다. 연못은 강희맹의 사위 권만형(權曼衡)의 후손들이 대대로 소유와 관리를 맡아왔다. 최근에는 관곡지 가까이에 약 3만 평에 이르는 연꽃농장이 들어서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다.



(그림 1) 관곡지



(그림 2) 관곡지



(그림 3) 관곡지



(그림 4) 관곡지

그 외 연을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장소로는 아래와 같은 곳이 있다.

- 덕진공원(德津公園)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4
☎ 063 - 279 - 6871
- 익산 홍련암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요덕사 홍련암
- 부여 궁남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지 ☎ 041 - 830 - 2523
- 아산 인취사 - 충남 아산시 인취사 ☎ 041 - 542 - 6441
- 무안 백련지 - 전라남도 무안군 회산백련지 ☎ 061 - 450 - 5226
- 유희연지(柳湖蓮池) - 청도군 유희연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 054-372-8800

2) 스케치 하기

연을 그릴 때에는 한 시점에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서 올려다보고, 옆에서 보는 등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본 것을 그려야 한다. 이때 연 전체의 모습과 꽃, 봉우리, 잎, 연밥 등의 부분적인 모양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연의 모든 요소를 잘 관찰해야 한다. 스케치를 하면서 부분적인 색상의 차이도 함께 메모하여 그림을 제작할 때 참고자료로 삼는다. 화면에 그림을 넓게 전개시킬지 좁게 그릴 것인지를 결정하여 필요에 따른 부분스케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3) 밑그림 제작

스케치한 자료를 활용하여 그림의 크기나 시각의 방향에 따른 화면상에 구도를 잡는다.

[준비물]

- 스케치한 밑그림
- 샤프 : 0.5mm, 0.3mm
- 지우개 : MAPED 제도용 지우개 - 무르지 않고 예리하게 지워진다.
- 면장갑 : 단추가 없는 것이 편하다.
- 라이트박스(Light Box) : 주문제작
- 스카치테이프 : 3M제품. 폭 1.6cm
- 줄자 : 3M짜리
- 자 : 50cm짜리
- 커터 칼
- 수건 : 면직물 , 얇은 것으로 준비한다.



(그림 5) 밑그림 준비재료



(그림 6) 라이트박스

(1) 라이트박스 위에 스케치그림과 이 보다 2~3cm 큰 크기의 트레이싱지를 밑그림위에 대고 사방모서리를 스카치테이프로 고정시킨다. 연필심이 가는 샤프연필 등을 사용하여 밑그림의 윤곽을 그려낼 때 마치 붓을 사용하듯이 하여 선을 굵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손목에 의해 연필선이 문

질러 지지 않도록 흰색 면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

(2) 제작된 밑그림을 복사한다.(충무로정우공사 ☎ 02 - 2268 - 7001)

2. 색표제작

[준비물]

- 캔버스 정품 틀 : 10호 사이즈 (미림화방-2,800원)
- 종이테이프 : 테이프를 붙인 후 안료를 올리면 가장자리가 깨끗해진다.
- 수건(면직물)
- 편셋 :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 끝이 예리한 것으로 구입하고 그것을 사포로 가는 과정을 거친다.
- 비단 : 작업할 그림의 비단과 같은 종류의 것을 준비한다.

제작할 그림에 사용될 안료의 색과 올릴 두께 등을 결정한다. 두께가 있는 연잎의 경우는 안료가 굵은(석록1번, 석청1번)것으로 결정하여 색표를 만들고, 염료로 그려주어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염료를 써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0호정도의 나무틀에 비단을 붙이고 교반수를 칠한 다음 앞뒷면에 종이테이프로 띠를 붙여 나눈 칸에 색표를 제작한다.



(그림 7) 색표제작

3. 선 연습

[준비물]

벼루 : 단계연 (뚜껑 있는 것이 먹이 마르지 않아 좋다.)

먹 : 고매원 오성(인사동서예백화점 ☎ 02 - 739 - 9500)

붓 : 면상필 2, 3호 (인사동한지마트 ☎ 02 - 2268 - 7001)

MDF판 : 두께 1cm - 쟁틀사이즈보다 2~3 cm 작게 제작한다.

물통, 접시, 주전자, 흰 장갑, 면수건, 담요, 스카치테이프

순지 : 연습용



(그림 8) 선 연습

- 1) 스케치한 그림의 선묘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 복사한다.
- 2) MDF판에 복사물을 붙이고 연습용순지를 그 위에 붙인다.
- 3) 면상필은 다양한 굵기로 준비한다.
- 4) 그림의 부위에 따라 굵은 선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가는 선을 사용해야 하는 곳 이 있으며 먹을 진하게 사용해야 할 때가 있고, 연하게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선 연습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결정하고 필선에 능숙해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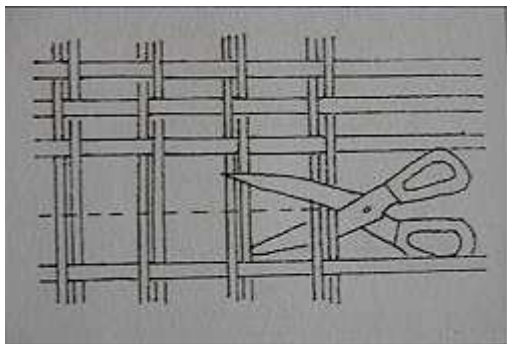
4. 비단 자르기

[준비물]

가위

비단 (중국 화견 3합 인사동서령필방)

비단은 캔버스 정품 틀의 크기보다 사방 1~2cm 정도 적게 준비한다.
비단을 자를 때는 자르고자하는 곳의 윗을 2~3올 정도 빼어 내 자르면
똑바르게 잘린다.



(그림 9) 비단 자르기

5. 쟁틀에 비단매기(붙이기)

[준비물]

정품 틀 150호

평붓 1호

밀가루

스프레이

- 1) 밀가루를 거품기로 잘 개어서 약한 불에 풀을 쏜다.

- 2) 정품 툴 150호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바닥에 뉘어놓는다.
- 3) 툴 크기보다 1~2cm 적게 잘라놓은 비단을 스프레이로 비단위에 뿌려놓는다. (비단이 너무 물에 젖지 않도록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 4) 풀을 묻게 하여 평필로 쟁틀 테두리에 풀칠한다.
- 5) 비단을 테두리에 맞추어 붙이는데 비단은 물이 닿으면 늘어나므로 사방을 당겨서 고정하여 붙인다.(잡아당기는 이유는 비단이 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 10) 비단매기

6. 교반수(膠礬水) 칠하기

[준비물]

아교(阿膠), 정제된 백반(白礬), 천칭저울, 유발

(인사동 서예백화점 ☎ 02 - 739 - 9500)

100ml, 500ml비커, 유리막대, 양팔저울(보성의료기 ☎ 02 - 2753 - 3427)

평붓 5호(인사동 구하산방 ☎ 02 - 732 - 9895)

핀셋 : 시중에 판매하는 것으로 구입하고 사포로 예리하게 갈아 놓는다.

사기그릇(면기), 랩, 커피필터기, 냄비, 핫플레이트, 받침용 접시

교반수는 비단위에 막을 형성하는데 이는 물감의 번짐이나 침투를 막고 견의 조직을 바르게 고정하여 채색에 착색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백반은 아교의 부패와 물감의 번짐을 막고 발색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1) 교반수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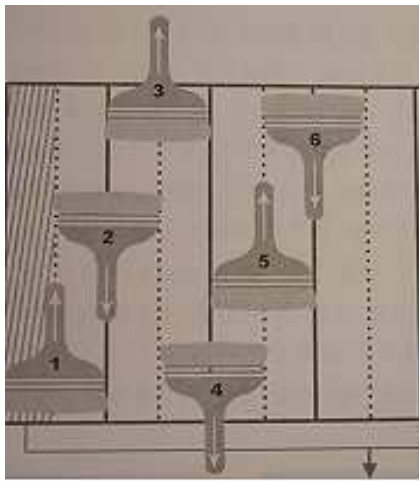
(그림 12) 아교중탕

- 1) 교반수는 비단의 울과 크기에 따라 그 용량을 달리한다.
- 2) 작업하는 비단이 오간자(五間子) 3합이므로 울이 굵어 흡수량이 많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 교반수용으로 쓸 때의 아교농도는 물의 양에 3~5% 양을 맞추며 백반은 아교양의 1/10로 한다.
- 3) 아교는 끓는 물에 넣으면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하루 전에 물에 불려 놓으면 빨리 녹아서 사용하기 편하다.
- 4) 아교 물은 사람의 체온(36.5°C) 정도에서 접착력이 가장 좋으므로 온도를 잘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5) 백반은 유발에 곱게 갈아서 정수기의 찬물에(백반은 뜨거운 물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 넣어 유리막대로 저어 녹인 후 아교를 녹인 물과 이것을 커피필터기로 정제하여 사용한다.
- 6) 교반수 시에는 중탕하여 따뜻하게 만들어 쓴다.
- 7) 쟁틀을 뉘여 놓고 교반수용 평붓에 교반수를 흘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묻혀서 비단의 폭 방향으로 겹치지 않게 칠하는데 이때 교반수가 고이면 안 된다.

8) 앞면을 칠한 후 하루나 이틀정도 충분히 말린 다음 뒷면을 칠한다.
이렇게 반복하여 앞뒷면을 각각 2번씩 칠하고 비단의 울이 덜 막혔을 경
우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먼저 칠한 교반수의 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교반
수로 한 번 더 칠한다.

9) 교반수를 칠할 때 마다 아교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비단에 붙은 미
세한 먼지를 핀셋으로 제거해야 한다.(매끄러운 선을 그리기 수월해 지며
채색이 깨끗하게 된다)

10) 완전히 마른 후 비단을 손가락으로 튕겨보았을 때 맑은 북소리가
나거나 여백에 붓으로 먹 선염을 해보아 번짐이 없으면 교반수가 잘된 것
이다.



(그림 13) 교반수 칠하는 법

7. 상초(上草)

[준비물]

벼루 : 단계연 (뚜껑 있는 것이 먹이 마르지 않아 좋다)

먹 : 고매원 오성(인사동서예백화점 ☎ 02 - 739 - 9500)

붓 : 면상필 2, 3호 (인사동한지마트 ☎ 02 - 2268 - 7001)

MDF판 : 두께 1cm 쟁틀사이즈보다 2~3 cm 작게 제작한다.

물통, 접시, 주전자, 흰 장갑, 면수건, 면천(광목), 스카치테이프,
교반수한 쟁틀

비단에 초를 뜰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가되 아래 부분은 면천으로 가려서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 그린다.

- 1) 앞에서 선 연습을 하여둔 밑그림 본을 쟁틀 밑에 놓는다.
- 2) 비단을 덮은 뒤 밀착시키면 비단에 선이 비쳐보이게 된다. 이 선을 따라 초를 뜬다.
- 3) 쟁틀위에 벽돌이나 무거운 것을 놓아 움직이지 않게 한다.
- 4) 그리는 순서는 연꽃 > 물풀 > 개구리밥 > 연잎 > 줄기의 순으로 그린다.



(그림 14) 상초

8. 먹 선염

먹 선염은 먹으로 우려 주어 화면의 깊이감을 더해주고 연잎의 덩어리감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한다. 이 때 연잎과 줄기에만 선염한다. 연잎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여 약간 어두운 먹색으로 선염하는 것이 좋고 농담의 차이를 주어 입체감이 들도록 선염한다.



(그림 15) 먹 선염

9. 채색작업

[준비물]

색표

안료아교(안료에 사용할 아교를 만드는 법 - 물과 아교를 10 : 1 비율)

채색 붓 : 대, 중, 소 (녹색, 청색, 적색, 흰색, 황토색, 노란 색, 연두색)

유발

석채 : 석록1번, 석록2번, 석청1번, 주사3번

봉채 : 연지, 등황(橙黃), 대자, 쪽

분채 : 연두색, 초록색, 밝은 황토색

편채 : 붉은 대자, 쪽

호분(胡粉)(성심필방 02 - 743 - 3132)

면봉

1) 석채(石彩)(인사동 서예백화점 ☎ 02 - 739 - 9500 석록,100g - 500원 석청,100g - 700원)

(1) 석채 개는 방법

석채는 쓸 정도의 양을 접시에 담은 후 아교 물을 2~3방울 넣어서 손가락으로 잘 문질러 개서 쓴다.

석채에 아교물이 고르게 문도록 손가락 중지를 사용해 문질러주면 안료가 접시 안에 고르게 퍼지게 된다. 그 다음 물을 4~5 방울 넣고 중지로 섞어 사용한다.

(2) 석채 칠하는 방법

석채는 색의 번호가 클수록 입자가 작고 밝은 색이다. 입자가 고운 석채 일 경우에는 피복력이 좋아 색을 칠할 때에도 수월하지만 입자가 큰 경우의 석채는 균일하게 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거듭 2~3번 칠한다)

입자가 거친 석채를 칠채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와 같이 석채를 잘 개었다 하더라도 아교의 농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아교가 위로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붓에 찍어 사용할 때마다 가라앉은 석채와 위에 떠 있는 아교 물을 잘 섞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봉채(棒彩)

(1) 봉채 가는 방법

봉채는 접시에 쓸 정도의 물을 1~2방울 떨어뜨린 후 봉채를 원을 그리며 먹을 갈듯이 갈아준다.(따뜻한 물이면 더욱 잘 갈린다) 어느 정도 진하

게 갈아지면 아교 물을 한두 방울 넣고 중지를 사용해 문지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쓴다.(커피필터기를 사용하면 깨끗하게 수비할 수 있다)

3) 분채(粉彩)

(1) 분채 개는 방법

분채는 유발에 넣어 곱게 갈아 접시에 담은 후 아교 물은 2~3방울 넣고 아교물이 입자에 고루 묻을 때까지 중지로 잘 문질러 낸다. 그 다음 물을 적당량 넣어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4) 편채(片彩)

(1) 편채 푸는 방법

편채는 염료 성분의 물감으로 모양이 납작한 편(片) 모양으로 되어있어 편채라고 부른다. 사용방법은 따뜻한 물에 3분정도 불린 후 중지로 원을 그리듯이 누르면서 갈아주면 된다.

5) 호분(胡粉)

(1) 호분 개는 방법

호분은 유발에 호분을 곱게 갈아 고운 채에 걸러서 준비한다. 여러 번 반복하면 고운입자의 호분을 얻을 수 있다. 아교 물을 넣어 석채와 같은 방법으로 개어 다시 한 번 갈아준다. 뽀뽀하게 개어진 호분에 물을 넣어 개어서 가라앉혀 아래의 거친 입자는 버리고 맑게 뜬 호분 물을 다른 접시에 따라내어 사용한다.

(2) 호분 칠하는 방법

석채와 마찬가지로 고운 호분을 먼저 바탕에 칠해주면 위에 칠해질 호분이 고루 잘 도포되기 때문이다.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다.

6) 세부묘사

(1) 연꽃

연지로 화면의 앞과 뒷면을 선염(粉染)하고 두께감을 주기 위하여 호분으로 두껍게 배채 하였다.



(그림 16) 연꽃



(그림 17) 연꽃

(2) 연방(연밥)

분채 연두색으로 앞에서 선염하고 연방은 녹색(편채 - 쪽, 등황)으로 그려 주고 대저로 연하게 눌러주었다. 연 씨는 연두색으로 그려준 후 노란 색으로 찍어 주었다.



(그림 18) 연방



(그림 19) 연방

(3) 연 수술

얇하게 호분으로 뒷면에서 배채한 후 앞면에는 아교를 많이 쓴 호분으로 그려주고 수술은 노란 색으로 앞뒤를 그려주었다.



(그림 20) 연 수술



(그림 21) 연 수술

(4) 연잎

① 잎의 앞면 - 석록 1번으로 3번 정도 배채한 후 앞면은 먼저 연두색(편채 - 쪽, 등황)으로 채색한 다음 대저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설채한다. 석록 5번으로 다시 엷게 두 번 올려주는데 이때 선묘가 보이도록 채색하여야 하며 잎맥은 석록 5번으로 필선을 그려 강조해 준다.



(그림 22) 잎의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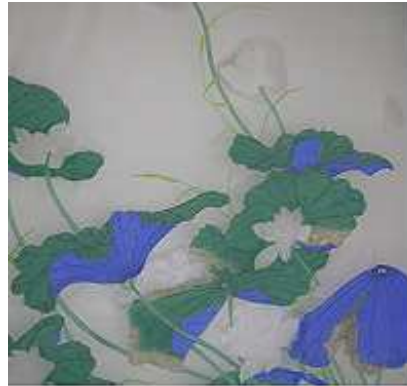


(그림 23) 잎의 앞면

② 잎의 뒷면 - 석청1번으로 3번 배채하고 잎의 앞면은 녹색의 분채로 채색한다. 그 후 석록 5번으로 얇게 두 번 더 올려주는데 이때 선묘가 잘 보이도록 채색하여야 하며 잎맥은 석 5번으로 그려준다.



(그림 24) 잎의뒷면



(그림 25) 잎의뒷면

③ 폐하(廢荷) - 분채의 밝은 황토색으로 배채한 후 앞면은 붕채인 대저로 선염하여 우려 준다.



(그림 26) 폐하



(그림 27) 폐하

(5) 줄기 - 석록 2번으로 2번 배채하고 앞면은 분채 녹색으로 채색한 후 농묵(濃墨)으로 연가시를 그려 넣는다.



(그림 28) 줄기



(그림 29) 줄기

(6) 풀 - 분채 녹색으로 배채하고 앞면은 편채 쪽과 등황으로 연두색을 만들어 설채한다.



(그림 30) 풀



(그림 31) 풀

(7) 개구리밥

녹색의 분채로 배채하고 앞은 편채 쪽과 등황으로 연두색을 만들어 채색하고 붓채인 대저로 한번 설채한다.



(그림 32) 개구리밥

10. 표구(表具)

표구는 작품의 보존기능과 전시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물론 그림을 잘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림보다 더 부각되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그림만 부각되어서도 안 된다. 표구작업을 함으로써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표구가 되어야 하며 표구의 방법에 따라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구용 비단의 선택과 표구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본의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에는 20년 이상 지하에서 썩힌 풀을 사용하여 표구하는데 이는 수세기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작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석채의 경우 유리를 끼워 전시하게 되면 전시장의 조명 때문에 유리가 반짝거리고 손자국이 생겨 작품의 효과를 다 보여 줄 수 없어 전시 중에는 유리를 끼우지 않는 것이 좋다.

V. 결론

지금까지의 연화도 제작 작업을 통하여 연꽃을 꽃이라는 이미지보다 인간의 심오한 철학이 담긴 이상화로써 고찰할 가치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전통채색화는 기법상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채색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 할 수 있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비단을 바탕재료로 사용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한 교반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반수를 할 때에 아교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백반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의 실패는 나로 하여금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림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재료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사용법은 그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우쳐 주기도 했다. 재료의 선택에도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적인 안료의 색보다 천연안료를 사용하여 사용할 때의 색감이 훨씬 더 부드러웠다.

전통진채 화법은 그 양식과 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화법에 대한 기법연구의 토대를 현대의 회화 창작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킨다면 회화상의 표현의 폭은 매우 다양하게 확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림 1) 김영희, 〈연1〉 (창작), 2006, 비단채색, 145×94cm



(그림 2) 김영희, 〈연2〉 (찰작), 2006, 비단채색, 136 × 56cm



(그림 3) 김영희, 〈연3〉 (창작), 2006, 비단채색, 65.5×51.5cm



(그림 4) 김영희, 〈연4〉 (창작), 2006, 비단채색, 65.5×5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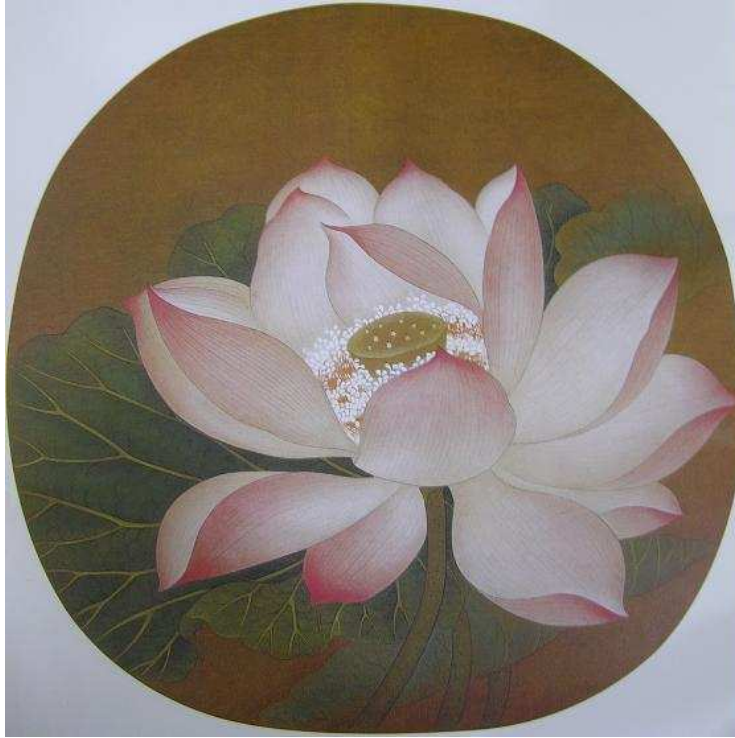
(그림 5) 김영희, 〈양귀비〉 (창작), 2006, 비단채색, 72×90cm



(그림 6) 김영희, 〈유채〉 (창작), 2004, 비단채색, 65.5×51.5cm



(그림 7) 김영희, 〈이화〉 (임모), 2004, 비단채색, 65.5×51.5cm



(그림 8) 김영희, 〈출수부용도(出水芙蓉圖)〉 (임모),
2004, 비단채색, 65.5×51.5cm

참 고 문 헌

1. 참고 저서

국립 현대 미술관, 『한국 전통 표준 색명 및 색상』 1991.

김원용, 『한국미술사연구』 일지사, 1989.

손경숙, 『채색화 기법』 도서출판 재원, 2002.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93.

유홍훈, 『조선시대 화론연구』 학고재, 1998.

이영수, 『연꽃이야기』 2004.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정종미, 『우리그림의 색과칠』 학고재, 2001

조용진, 『채색화 기법』 미진사, 1992.

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일지사, 1998.

2. 참고 논문

고정한, 「전통회화에 사용된 천연재료연구」 용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화영, 「한국연화문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77.

김희성, 「연꽃의 공간적 구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박세인, 「연화의 상징적 의미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손광석, 「조선전통 제작기법 연구」 용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상훈, 「교반수법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석사학위논문, 1999.

존원터, 「한국 고대 안료의 성분분석」 국립중앙박물관 역 미술
43호, 1993.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in floral painting applying traditional coloring

Kim, young hee
Major in Traditional
True Colored Painting
Dept. of Painting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Lotus painting is a kind of floral painting and it realized self image through the lotus flower as its subject.

A lotus grows in a swamp or a pond and blooms in the summer. It has been loved a lot for it is clean and its petals remain spotless even though it grows in mud. Language of lotus flower is purity and innocence. It is widely known that the lotus flower symbolizes Sakyamuni who saves the living things with suffering.

However, in fact, lotus has been seen in ancient Chinese paintings even before the Buddhism emerged, and lotus flower has been consistently loved until Joseon era. In Korean colored paintings they don't use iron-like lines which are used in Japanese painting and they

don't endeavor to make the painting perfect. And in Korean painting, they don't show off the size or grandeur like they do in Chinese painting. In a Korean painting, there is a blank space that makes the painting looks like undone in a sense. They are not sophisticated enough to explain why. But these make Korean paintings different from others, and this uniqueness can make fragrance of Korean people sublime into art. An artistic fragrance requires uniqueness of each culture and I believe that this uniqueness can be generated when the fragrance is expressed through artworks.

As we pass multiple eras and since the Western paintings entered to Korea, the attention to Korean painting is getting less. However, in this study, you can see that there are artists who are seeking Korean-likeness in Korean painting. They adequately mixed Gureuk(fine brush) method and Molgol(free brush) method to express the Korean lyricism. Using line drawing method, they added think color and made ink soaked. Aerial perspective is applied to express freshness with the feeling of moisture. I studied traditional coloring method to adapt it and I explained painting process roughly in two categories. In terms of coloring method, I copied the method of traditional Chinese painting and Korean painting. Painting process can be divided in two; one is preparing stage and the other is creating stage. In preparing stage, I explained the way how to dye silk, how to tie the silk to the painting frame and how to make background water solution in detail. In creating stage, I explained drawing, line practicing, coloring chart making, and how to use pigment.

I would like to make this chance to succeed and develop our ancestors' method used in flower-and-bird painting through the study on floral paintings that adapted traditional coloring.